

“희망을 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을 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모든 용돈을 기부한 어린이, 기부금만 건네고 홀연히 사라진 키다리 아저씨,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더 힘들다며 성금을 전달한 기부자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나눔에 앞장선 기업들까지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경험한 한 해였지만, 이분들이 있어 우리는 계속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오지랴(oz.lab)_ 유튜브에서 '오지랴'를 검색하세요.

-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발열 검사와 소독을 마친 뒤 진행했으며, 사진 촬영 전후와 인터뷰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d1126611b

#착한일하기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러 갔다가
이웃사랑 모금함에 모금. 사랑의열매도
챙기고, 한 개씩 끼고 땡기자.ㅋ
#일상 #일상그램 #전입신고
#사랑의열매
#착한일했으니생색내기



Juliannejung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기부하기.
구석에서 얼마나 모았나 세어보는
아이들.♡
#희망2021나눔캠페인
#나눔으로희망잇기 #사랑의열매기부



mond_jy

고마워, 잘 끼고 다닐게.
#lovecherish #러브체리쉬캠페인
#사랑의열매 #기부캠페인 #minigold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joeunbic13

사랑의 열매.
#사랑의열매 #기부 #행복

CONTENTS



- 04 희망2021나눔캠페인 ①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전국 나눔 현장
- 06 희망2021나눔캠페인 ②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전하는
전국의 키다리 아저씨들
- 08 희망2021나눔캠페인 ③
고사리손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린
어린이 기부 천사들



사랑의열매

vol. 166 2021. 02

발행인 예중석 발행일 2021년 2월 / 통권 16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FEBRUARY



10 **모두의 나눔 _ C-SDGs 연계 배분 사업**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없을까요?

16 **특별 기획**

임형주의 나눔 초대석

20 **내 인생의 한마디**

평생 팔죽 끓여 12억 원 기부한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김은숙 대표

2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 시상금 기부한 NLCS JEJU 양상블 '아미'

26 **착한기업**

옷 한 벌에 담긴 따뜻한 나눔 철학
여성 패션 전문 기업 INDONG FN

28 **크라우드펀딩**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크라우드펀딩

32 **사랑의 골든글러브**

2020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한 NC 박석민

33 **나눔 이슈**

착한 목도리로 나눔과 희망을 이어주세요

34 **착한동네**

위기 때마다 빛나는 위대한 나눔 정신
대구 구암동 착한마을

38 **전국 지회 뉴스**

50 **이달의 아너**

52 **독자 페이지**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전국 나눔 현장

캠페인이 진행되는 62일 동안 나눔 열기를 더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기존 대면 모금에서 벗어나 비대면 모금 방법을 시작하는 등
이번 나눔캠페인에서만 볼 수 있던 현장 소식을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PART
1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캠페인 모금



사랑의열매의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며, 열매의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이웃사랑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찰칵~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 사랑의열매와 서울시가 매년 진행하는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모금 방식을 도입했다. 각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등에 마련한 기부 전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은 성금은 해당 자치구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파주사랑! 희망나눔!’

온(溫)택트 모금 방송 진행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파주시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파주시가 후원하는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 모금 행사로 전환하며 자체 모금 방송을 선보였다. 지난 12월 22일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도탑 제막식, 파주 시민 기부 모습 등이 담긴 모금 방송을 진행했다.

지역화페 온통대전으로 기부하는

‘ON情나눔’

대전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지역화페와 연계해 구축한 기부 플랫폼이 있기 때문. 온통대전 앱에 있는 ‘온통대전으로 정(情)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은 ‘온정나눔’ 아이콘을 누르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PART
2

나눔캠페인 릴레이 이벤트 온도탑 올리기

캠페인 시작과 함께 매주 기부자들이 나눔온도를 올리는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1월호 <사랑의열매>에는 온도탑 올리기 4호 기부자까지 소개했다.

이번 호에는 5~7호 온도탑 올리기 기부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온도탑 올리기 5호

**호출 1회당 100원씩 기부하는
착한택시 박병준 기부자**

“택시 운전대를 잡은 이후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6개월마다 모은 돈을 기부해왔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뜻깊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푼 두 푼,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채널에서 확인 가능



온도탑 올리기 6호

**미용업계 최초로 가맹점 전체가
착한가게 단체 가입**

**헤어 살롱 브랜드 '살롱에이'
김지연, 문미영 기부자**

“헤어 디자이너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수익을 나눈다면, 사람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 그리고 세상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착한가게에 가입했습니다. 나눔 이후 큰 변화는 직원들의 직업적 자부심이 높아졌고, 고객분들도 시술을 받으면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니 훨씬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작은 나눔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탑 올리기 7호

**인천 최초로 부부가 함께 아너 가입
이만우·성숙희 기부자**

“나눔을 실천한 이후 오히려 마음이 참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나눔으로써 얻는 행복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기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눌수록 행복해지니 더 행복해지려고 자꾸 나누는 것이죠. 즉 나눔은 남이 아닌 나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전하는

전국의 키다리 아저씨들

매년 사랑의열매 나눔캠페인이 시작되면 소리 소문 없이 기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이름 없는' 기부자들이 나타났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0년 약속을 지킨 대구 키다리 아저씨

2012년부터 매년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해온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마지막 기부금을 전했다. 지난 12월 23일 대구 사랑의열매와 만난 그는 5,000만여 원의 수표와 메모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자필로 쓴 메모에는 “이번으로 익명 기부는 그만둘까 합니다. 저와의 약속 10년이 되었군요. 우리 이웃이 좀 더 나은 생활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가족도 모르게 기부를 하던 중 아내가 신문에 실린 메모 필체를 알아보고 그제야 남편의 기부를 알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조용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그가 지금까지 열 차례에 걸쳐 전달한 기부금은 10억 3,500만여 원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많은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인사를 남겼다.

강원 사랑의열매 직원에게 기부금을 건넨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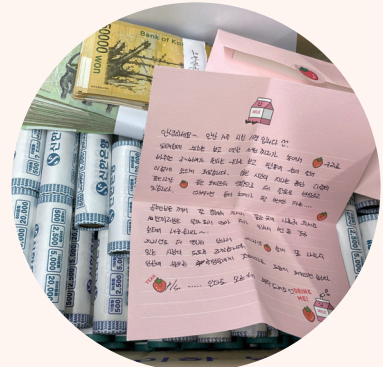
지난 12월 9일 강원 사랑의열매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한 관계자에게 종이 가방을 건네고 홀연히 사라진 기부자. 가방 안에는 신문지로 싸 5만 원 1,200장과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모금회의 노력으로 우리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닿길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그는 기부금을 속초시 등 강원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직원에게
기부금을 건넨 기부자



경남 합천군 키다리 아저씨가 전한
희망의 돼지 저금통



안산 사랑의온도탑 앞에 놓고 간
동전 7,007개

경남 합천군에 전달된 희망의 돼지 저금통

지난해 12월 23일 합천군 초계면에서 돼지 저금통 하나를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는 익명의 기부자가 전달한 것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초계면의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불우 이웃 돕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라고 적힌 돼지 저금통에는 5만 원 지폐 16장, 1만 원 지폐 28장, 5,000원 지폐 19장, 1,000원 지폐 115장, 나머지 동전들로 총 141만 원가량 현금이 들어 있었다. 그의 요청대로 기부금은 초계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랑의온도탑 앞에 놓고 간 동전 7,007개

지난 12월 14일 익명의 기부자가 안산시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 앞에 상자를 몰래 두고 떠났다.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된 상자에는 동전 7,007개와 종이돈 등 현금 307만 70원과 손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오래전 옛날 10원짜리를 녹여서 구리로 바꾸면 3~4배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 모으게 됐다”며 “하마터면 돈의 노예가 될 뻔한 저를...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이 건넨 기부금이 힘든 환경에 처한 안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새해 첫 아너 회원이 된 '김달봉' 아너

전북 사랑의열매 2021년 새해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익명의 기부자가 되었다. 직접 전북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찾아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과 함께 김달봉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떠났다. 그는 12월에는 방역 마스크 20만 장 기부를, 지난해에는 부안군청에 고액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는 중이다. ❀



고사리손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린

어린이 기부 천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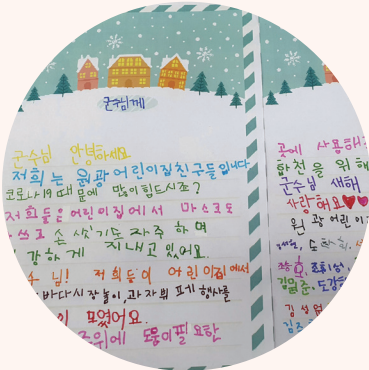
기부는 나중에 좀 더 가진 게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매년 캠페인 때마다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은 기부금을 내는 어린 기부 천사들이 있다. 어린 기부자들은 기부 금액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란 사실을 어른들에게 일깨워준다. 글 이선희 사진 함천군청



6년째 저금통을 전달하는 착한 남매

정석현·정지윤 남매

2016년부터 매년 새해가 되면 울산 사랑의열매를 찾는 남매가 있다. 정석현·정지윤 남매는 열세 살, 여덟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저축한 저금통을 기부하며 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월 4일 동생 정지윤 기부자가 저금통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정지윤 기부자는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 마음이 잘 전해져서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예쁜 손 편지와 함께 도착한 따뜻한 마음들

원광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원생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손 편지와 함께 이웃 돕기 성금 19만 1,000원을 함천군에 전달했다. 원생들의 손 편지에는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시장, 과자 뷔페 행사 등을 통해 돈을 모았어요. 이 돈을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에 문준희 함천군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웃을 위해 각자 용돈을 모은 기특한 형제

이주성·이주원 형제

경북 안동시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주 특별한 성금이 전달됐다. 이주성·이주원 형제가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들을 위해 쓰고 싶다며 돼지 저금통 2개를 들고 방문한 것. 형제의 부모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덴탈 마스크 600매를 전달했고, 아이들의 기부 소식을 들은 할머니도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다며 기부금을 추가했다. 3대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추운 겨울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인천에 나타난 네 살 꼬마 천사들

안수아, 문민준 어린이

지난해 12월 22일 인천 부평구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안수아, 문민준 어린이가 각각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후원금과 물품을 전했다. 안수아 어린이는 “어려운 이웃에게 주세요”라며 저금통을, 문민준 어린이는 쌀 50kg(10kg, 5개)과 조미 김 5상자를 기부했다. 문민준 어린이 가족은 지난 4월에도 동생 출생 기념으로 저금통을 기부했으며, 8월에는 일회용 마스크와 직접 만든 마스크 목걸이 100개를 기부하는 등 올해 벌써 세 번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전달받은 기부금(품)은 인천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청천2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쿠키 등 판매 수익금 전달

전주 평화원광어린이집

지난해 12월 연말을 앞두고 전주 평화원광어린이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북 사랑의열매에 123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 내 ‘모으는 사랑 나누는 행복’ 모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군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에 학부모·교직원들의 기부금을 더해 조성한 것이다. ♡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없을까요?

사회 곳곳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글이선희 사진각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사랑의열매는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에 따라 영역별 배분이 이루어진다. 모두의 나눔에서는 매달 C-SDGs의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번 달은 8번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을 소개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환경 구축 사업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교육을 받은 탓에 취업으로 연결될 만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거나 부족하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삼성전자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나눔과꿈 사업을 시작했다. 학원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현장에서 직무 훈련을 진행하는 게 본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해 지역 기관 4개를 발굴해 카페, 미용, 청소 직무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었던 점, 새로운 직종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 청소 및 방역 기술 훈련을 담당할 ㈜동행과 함께 직업훈련현장 모니터링 진행
2 광진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미용 직무 훈련 중인 참여자

MINI INTERVIEW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강상묵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컸다고 들었어요. 계획한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타 기관과 연계, 협력하지 못해 자체 봉사 활동으로 진행해야 했던 사회적 프로그램이 가장 아쉽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나요?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고용 등을 수용해줄 수 있는 기업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계선 지능 청년 맞춤형 훈련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컨설팅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독립적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새 보육 프로그램



함께하는 행복돌봄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장기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사회 중·장년층 중심으로 돌봄 지원단을 구축해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단순히 아이만 돌봐주는 사업이 아니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에도 중점을 둔다.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자 부모 교육, 심리 지원, 공동육아 소모임 등을 진행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년층 대상으로 돌봄지원단을 양성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1 지역사회 중·장년층
중심으로 양성된
돌봄지원단의 돌봄 지원 모습
2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코치 상담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참여자들의 한마디

“육아기 동안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바쁘지만 뭔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가졌고, 다른 엄마들과 만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교육받는 시간도 소중하고 유익한 경험입니다. 저는 현재 경력 단절 기간이 아니라 경력 플러스 기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 참여자

“교육받는 동안 돌봄도 지원받았는데, 정말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울컥했어요. 이만큼 지원받으니 더 열심히 해서 취업에 꼭 성공하고 싶은 의지도 생겼어요.” -황○○ 참여자



MINI INTERVIEW

대아종합사회복지관 기획사업팀 최고은 과장, 김다솔 사회복지사



지난해 코로나19가 사업 진행에 큰 변수로 작용했을 듯합니다.

대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기 가정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오롯이 가정 내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춤형 육아 코칭, 양육자 교육, 틈새돌봄 사업, 육아 소모임 등 육아기 가정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 모두 계획한 참여 인원을 100% 이상 모집 달성하며 높은 호응과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많은 참여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지요?

예비 커리어우먼 2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 분은 남매를, 다른 분은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와 병행해 취업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헌신적 엄마의 모습과 열정적으로 재취업 지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 육아와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기에 틈새돌봄 인력 지원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집중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재취업을 준비 중이세요.

올해 나눔과꿈 2차 연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 1차 연도 사업은 운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중·장년층 여성 중심 돌봄미단을 모집 및 양성했으며,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을 모집하고 재취업 동기부여 및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틈새돌봄 인력 보수 교육 및 추가 인력 양성을 통해 틈새돌봄 체계를 확대하며,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진로 계획에 따른 개별 교육과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떤 점에 집중할 예정인가요?

사업의 주요 대상인 육아기 가정은 자녀 돌봄과 관련해 상황적 변수가 많아 재취업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눔과꿈 사업 종료 후에는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참여 가정과 틈새돌봄지원단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음악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전문 연주자 창직 프로젝트



Do Dream!! 세상을 향한 두드림

1 2020년에 진행한
'꿈을 그리는 음악회'
2 개인 특성에
맞춘 특수 교수법으로
진행하는 음악교육

발달장애인은 집중력과 인내심이 강해 예체능 분야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당 직종을 찾기 어렵다. 여기서 착안해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은 음악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진행해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11명의 발달장애 연주자가 정규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나눔과꿈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악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클라리넷, 색소폰, 드럼에 트럼펫과 트럼본을 추가해 악기군을 확대했다. 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파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며, 향후 전문 연주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드림위드양상블 박하영 교육생 학부모의 참여 후기

“장애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위드양상블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다가 하영이가 재능을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지 점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통해 드림위드양상블을 알게 되어 견학을 가서 정규단원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하영이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우리 하영이도 음악적 재능을 키우며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드림위드양상블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지도로 하영이의 클라리넷 연주 실력이 점점 늘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사회성도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장애 청소년이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INI INTERVIEW



드림위드양상블 운동혁 공연팀장

나눔과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드림위드양상블 내 음악교육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교육 내용이 탄실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교육 사업의 활성화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면서 교육생은 물론 팀원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음악에 재능이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드림위드양상블의 음악교육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변화한 모습을 많이 목격했을 듯합니다.

교육 외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음악 캠프도 다녀오고 음악 발표회도 함께 준비하면서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말도 없이 교육을 받던 친구들이 이젠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으며 매주 교육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생들이 사회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모습을 기대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나요?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핸드폰을 던지는 등 거친 모습을 보이던 교육생이었는데,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성격도 차분해지고 드림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음악 발표회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쳐 행복해하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클라리넷 양상블팀만 운영 중인데요, 음악교육생을 주축 멤버로 밴드팀을 결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일정 자격을 갖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규직 단원 채용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된 나눔명사 시리즈
〈임형주의 나눔초대석〉 마지막 에필로그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팝페라테너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가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했던 〈임형주의 나눔초대석〉을 마무리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캠페인을 위해 묵묵히 측면지원을 해준 임형주 교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박충렬

많은 걸 배웠던 시간

세계적인 팝페라테너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가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했던 나눔명사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얼어붙은 가운데, 나눔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온도탑의 온도를 높여보고자 임형주 교수가 측면지원에 나섰다. 그는 나눔의 명사들을 찾아 다시금 이웃을 돌보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캠페인 기간에 진행되어 의미가 컸어요. 평소 존경하던 BNK그룹 김지완 회장님, 애틀미 박한길 회장님, 그리고 국민신탁문화유산 김종규 이사장님을 만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 임형주 교수는 부산에 본사를 둔 BNK그룹 김지완 회장을 만나는 것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사진은 부산을 찾아준 임형주 교수에게 답례 선물을 전달하는 김지완 회장 모습
 2 공주 애터미 본사에서 임형주 교수와 박한길 회장의 기념촬영 모습. 애터미 본사 직원들의 예정에 없던 노래 요청을 임형주 교수는 흔쾌히 수락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3 인터뷰 중인 임형주 교수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상대를 배려하는 임형주 교수의 편안한 인터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임형주 교수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제한된 캠페인 기간이었지만 캠페인 종료 12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조기달성을 이루었고, 나눔 온도는 1월 31일 종료일 기준 114.5도로 초과 달성 했다.

나눔온도 위해 즉석 공연도

임형주 교수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편 진행 중 즉석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애터미 인터뷰 때 홍보대사로서 깜짝 노래 선물을 하게 되었었죠. 제 노래를 듣고 감동하던 분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요. 음악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다시금 느꼈던 순간이기도 해요.”

인터뷰를 위해 애터미 본사 방문 당시, 임형주 교수를 만난 직원들이 예정에 없던 노래를 청했다. 임교수는 당황하지 않고 흔쾌히 천개의 바람 등 대표곡을 선사했다. 박한길 회장은 이런 임형주 교수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 등 4명의 아녀 소사이어티 가입을 약속하기도. 현재 박한길 회장 부부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자를 포함 일가 전원이 아녀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홍보대사 10주년, 그 소임 다할 터

임형주 교수는 올해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10주년을 맞는다. 이번 연재가 보다 특별했던 이유다.

“언제 10년이 됐나 싶어요. 그 동안 국내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도와드렸지

“
 본인의 삶과 신념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을 추구하시는 BNK그룹 김지완 회장님,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 여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시는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님까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만, 그럼에도 더 도와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여하면 되겠지요?(웃음)”

임형주 교수는 ‘타인을 돌보는 마음, 그 사랑이 있기에 사람은 오늘도 살아 있다’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그 자신도 사랑을 전달하는 홍보대사로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실천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재를 마무리하는 임형주 교수는 마지막까지 사랑의열매를 계속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다. 10주년을 맞은 홍보대사의 인사말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



현장 동행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기억하는 <임형주의 나눔초대석>

“<임형주의 나눔초대석> 첫 시작을 부산에서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어요. 멀리 부산까지 찾아 오셔서 부산의 대표 나눔 기업인 BNK금융그룹과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면서 임 교수님의 나눔에 대한 깊이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부산지회 모금사업팀 김수미 과장



“공주 애터미 사옥에서 환영하는 직원들을 위해 즉석해서 공연을 해주시던 소탈한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나눔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중앙회 사회공헌본부 법인사업2팀 한상춘 팀장



“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초대석을 진행하며 현장의 사람들 모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시던 친절함 교수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늘 따뜻하고 다정했던 임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중앙회 마케팅본부 홍보기획팀 최영인 담당

평생 팔죽 끊어 12억 원 기부한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김은숙 대표

“나눔은 그저 당연한 일이에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김은숙 대표가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민포장과 함께 제32회 서울시 봉사상 대상까지 수상했다. 평생 팔죽을 팔며 50여년간 총 12억 원을 기부해온 그녀다. 그래서일까, 김은숙 대표의 팔죽 한 그릇에는 더없이 깊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꿈에도 생각 못한 큰상 받아

종로구 삼청동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그마한 단층 벽돌집이 보인다. 바로 김은숙 대표의 가게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다. 1976년 4월, 처음 문을 열어 5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팔죽을 팔아왔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유명한 집이다. 서울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진짜 유명한 건 평생 팔죽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김은숙 대표는 사랑의열매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 크고 작은 기부를 해왔다.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아파트 매각 대금 약 9억 원까지 더해 김은숙 대표의 누적 기부금은 총 12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팔죽을 둘째로 잘한다고 말하나 보다. 이런 그의 삶은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포장, 코오롱그룹 오온문화재단 우정선행상, 제32회 서울시 봉사상 대상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이번엔 감회가 남달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우등상은 받아봤지만 이런 큰 상을 받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분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한번쯤 이렇게 인정받으니...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이번에 큰 상을 받은 감회는 남다르더군요.
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분이었어요. 열심히 살아 한 번쯤 이렇게 인정받으니...
그래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아픈 딸 돌보며 시작한 나눔

김은숙 대표는 스스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했다. 남편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빠듯해 하숙도 치면서 생활비를 벌곤 했다. 그러다 이발소가 있던 지금의 건물을 사서 가게를 낸 것. 처음엔 온 가족이 가게 안쪽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았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전셋집을 얻어 나갈 때까지 여기서 17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단팥죽을 만들까 궁리하면서 장사하느라 고생이란 생각도 안 들었지요.”

김은숙 대표는 그의 나이 아홉 살에 엄마 손을 잡고 38선을 넘어왔다면, 그런 어려웠던 삶이 처절할 정도로 동물적인 생존력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했다. 그런 그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은 고3 무렵 정신장애를 앓기 시작한 딸을 돌보면서였다.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떤 길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계기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젠 어려운 이웃들

직접 만나고파

슬하에 남매를 둔 김은숙 대표는 몇 년 전 아들에게 가게 명의를 이전하며 일선에선 한발 물러났다.

“명의 이전을 결심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은퇴하면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넘기고 나니, 왜 그동안 자유롭게 살지 않고 가게만 붙들고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이젠 조금씩 돕는 가게 일도 힘이 드네요.(웃음)”

그나저나 1976년 4월, 많고 많은 장사

중에 왜 팔죽이었을까? 이야기 말미가 되어서야 궁금해졌다. 김은숙 대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팔죽이라며 웃는다. 피란길에 먹은 단팥죽 한 그릇의 맛이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면서 말이다.

“나눔은 당연한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다 끌어안고 갈 수 없는데,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딸 병원 다니고, 현상 유지만 하면 충분해요.”

나눔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김은숙 대표는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많은 기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사람이 기부를 안 하면 자신이 상을 받았을까 싶단다. 김은숙 대표의 새해 소망은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것이다. 그의 팔죽 이야기, 어찌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조짐이다. ❀

공모전 시상금 기부한 NLCS JEJU 앙상블 '아미'

“아미의 온도탑은 나눔으로 올라갑니다!”



- 1 앙상블 아미 기부 전달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문석현, 문석현 학생, 김남식 회장, 오진영 학생)
- 2,3 연주하고 있는 앙상블 아미 단원들
- 4 앙상블 아미는 제주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재능 기부로 축하 연주를 했다.



재능 기부 단체 NLCS JEJU 앙상블 아미가 영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 시상금을 기부했다.

폭넓은 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앙상블 아미. 이들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문석현·오진영 두 공동대표에게 들어보았다. 글강은진 사진제주사랑의열매, NLCS JEJU 앙상블 아미

특별한 공모전, 특별한 기부

NLCS JEJU 앙상블 아미(이하 앙상블 아미)가 사랑의열매에 자신들이 받은 시상금을 기부했다. 그것도 제주 사랑의열매 2021년 새해 1호 기부자로 말이다. 앙상블 아미는 음악이라는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다. 단원들은 NLCS JEJU 국제학교 학생으로 문석현·오진영 학생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아 앙상블을 이끌고 있다.

“제주도 학생으로 제주 4·3 사건을 널리 알리고자 자유 영상물 공모전 <제1회 ‘4·3과 평화’ 영상 공모>에 참가했는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대회의 취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 만큼 시상금을 허투루 사용할 수는 없었지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문석현 대표는 제주 사랑의열매 캠페인 출범식 때 재능 기부한 축하 연주가 계기가 되었다며,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고 했다.

아미만의 온도탑, 계속 올라갈 것

앙상블 아미는 노인복지센터나 병원, 다문화센터 등에서 재능 기부 연주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서 탄탄하게 인지도를 쌓아왔다. 하지만 앙상블 아미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기부 릴레이 음악회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예요. 또 아미 굿즈도 제작해 모금 활동을 시작하고, 매년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미만의 온도탑 온도를 계속 올려가려고요.”

문석현 대표와 함께 앙상블 아미를 이끌고 있는 오진영 대표는 당차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직 어린 학생이라고 치부하기엔 앙상블 아미는 단단하게 영글어 있다. 그들에게 나눔이란 무엇일까? 문석현·오진영 두 대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 아미 단원들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면서 말이다. 단원들 각자가 지닌 재능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NLCS JEJU 앙상블 아미, 그들의 온도탑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패션계의 선한 영향력을 꿈꾸다

옷 한 벌에 담긴 따뜻한 나눔 철학

옷은 패션도구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보호막이기도 하다.

이런 의류의 본질은 여성 패션 전문 기업 INDONG FN의 나눔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글강보라 사진INDONG FN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INDONG FN(이하 인동에프엔)의 따뜻한 사회 공헌이 눈길을 끈다. 인기 패션 브랜드 쉬즈미스(SHESMISS), 리스트(LIST), 시스티나(SISTINA)를 운영하는 인동에프엔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해 5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 것이다.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나눔명문기업

인동에프엔은 5억 원의 성금 기탁으로 나눔명문기업 80호에 등재되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하는 중견·중소기업 모임으로, 사회 공헌에 대한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인동에프엔의 장기권 대표는 2013년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터티의 회원으로, 평소에도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강조해왔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

움을 겪는 불안정한 취약 계층,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회사와 대표의 이 같은 나눔 시너지 덕에 어려운 이웃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여성과 아동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인동에프엔의 사회 공헌 사업은 여성과 아동을 향해 있다. 우리의 내일이자 희망인 이들을 지원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 사업이 공부방 지원이다. 편모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사랑의 공부방'과 2008년부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미혼모 시설, 자활 시설, 지역 사회복지관 등 전국 여성 복지 기관에 의류 현물 지원도 하는 등 여성의 자립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동에프엔은 '함께 사는 세상,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기

업'을 모토로 여성·아동과 함께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일상 기부를 꿈꾸다

일상에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회사의 이벤트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일에도 앞장선다. 대표 브랜드 쉬즈미스의 '트루 러브(True Love)', 리스트의 '굿 백(Good Bag)' 캠페인은 연계된 제품 구입 시 수익의 일부가 편모 가정 아동 후원에 사용돼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던 행사로 기억된다. 이처럼 즐거운 기부 경험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참여 가능한 나눔의 장을 펼쳐 더욱 의미깊은 패션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이웃과 함께하며 더 큰 나눔을 실천할 때 진정한 나눔명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인동에프엔의 나눔이 있기에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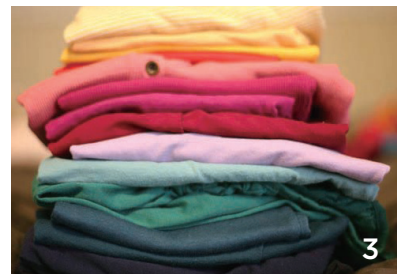


1

1 인동에프엔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모습. 패션업계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해 가입을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2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사랑의 공부방'은 형편이 어려운 편모 가정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곳으로 인동에프엔의 복지사업에 시초가 됐다. 3 전국 54개 여성 복지 기관을 선정해 의류 현물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4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인동에프엔의 복지사업은 사회의 연대이며, 절절한 응원과도 같다.



2



3



4

사랑의열매와 함께 즐거운 펀딩 생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클라우드펀딩

지난 2019년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첫선을 보인
클라우드펀딩이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회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하며 기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회문제와 새로운 이슈에 빠르게 대응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은 좋은 기획과 새로운 지원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사업을 홍보해 기부자와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까지 맡았다. 사랑의열매는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전통적 기초 복지 분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을 선도하고, 육성하고자 한다. 클라우드펀딩 사업 선정 시 기존에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과 차별화한 점,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점차 사회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문제와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선보였다.

- 코로나19(청각장애 학생 투명 마스크 지원 사업, 요양보호사 지원 사업)
- 아동 학대(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관련 사업 등의 주제가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클라우드펀딩을 가깝게 느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정서 치료 지원 2 요양보호사 대상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클라우드펀딩 2021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업 기간

기존 각 사업당 3개월 이내 → **변경** 각 사업당 4개월 이내

목표액 달성 매칭

기존 모금 목표액의 50% 이상 달성 시

달성 모금액	매칭 지원 금액
300만 원 미만	달성 모금액의 20%
300만 원 이상	달성 모금액의 30%



변경 모금 목표액의 20% 이상 달성 시

달성 비율	매칭 지원 금액
20% 이상~40% 미만	달성 모금액의 20%
40% 이상~60% 미만	달성 모금액의 30%
60% 이상~80% 미만	달성 모금액의 40%
80% 이상~100% 미만	달성 모금액의 50%
100% 이상	달성 모금액의 60%

매칭 한도

기존 건당 최대 150만 원 한도 → **변경** 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숫자로 보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것

55.6 크라우드펀딩
평균 달성률

크라우드펀딩의 평균 달성률은 55.6%다. 이 중 목표를 100% 달성한 사업은 총 2개로 301네트워크 의료 지원 사업과 우리의 목소리를 보는 사람들(이하 청각장애 학생 투명 마스크 지원 사업)이다.

2020년에는 모금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하면 매칭금을 지원했다. 따라서 이 매칭금을 지원받은 성공 사례는 이보다 더 많다.



5 펀딩 종료 후 피드백
콘텐츠 제작 수

크라우드펀딩 모금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사랑의열매는 펀딩에 참여한 기부자를 위해 사업 결과를 취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폭염 응급 키트 지원, 301네트워크 의료 지원 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 취약계층 재무컨설팅 및 대출지원사업까지 총 5개의 피드백 콘텐츠를 제작했다.

301 청각장애 학생
투명 마스크 지원 사업
참여한 기부자 수

지금까지 진행한 크라우드펀딩 중 가장 많은 기부자가 참여한 펀딩은 청각장애 학생 투명 마스크 지원 사업이다. 총 301명이 기부하며 모금 목표를 142% 초과 달성했다.

12 크라우드펀딩
총진행 횟수



2019년 11월 301네트워크 의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월까지 총 12개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708



2020년 12월 기준 총참여자 수

18,187,051

2020년 12월 기준 총모금액

모금 목표 142% 달성

우리의 목소리를 보는 사람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우리의 목소리를 보는 사람들(청각장애 학생 투명 마스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부자는 301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총모금액은 426만 502원으로 당초 세운 모금 목표액을 무려 142%나 초과 달성했다.

클라우드펀딩 사업을 담당하는

사랑의열매 온라인팀 서정애



“이 펀딩이 성공한 이유는 많은 분이 공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불편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함이라는 부분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에 소액 다수 기부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며 클라우드펀딩의 최초 사업 목적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펀딩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게 한, 저에게는 잘 썬 ‘첫 단추’ 같은 펀딩이었습니다.”

클라우드펀딩 기부자님~

“큰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금액은 정해진 목적에 잘 쓰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전달받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이어가는 사업 피드백 결과도 전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클라우드펀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명 마스크 전달 맡은

사랑의달팽이 이인환 대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면 많은 분이 청각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펀딩을 통해 지원하는 투명 마스크는 청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교육하는 선생님,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등 청각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분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기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명 마스크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원생들과 함께 펀딩에 참여한

울산경찰청어린이집 슬기반 친구들



“저희 어린이집은 매년 졸업 그림전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엮서로 만들어 판매한 후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 아래 인터넷에서 알아보던 중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을 알게 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의사소통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펀딩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기부 후 받은 사랑의열매 배지를 보며 아이들은 이담에 커서도 도움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나눔을 뿌듯해했습니다.” - 울산경찰청어린이집 조보람 선생님

투명 마스크 일대일 매칭 기부한

엠케이글로벌 배명관 사장님



“솔한 시행착오를 거쳐 마스크가 완성될 무렵 청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사용 가능하고, 대화 시 김 서림 방지, 세척을 통해 재사용 등 이상적 기능과 디자인을 갖추기 위해 저희의 기술력을 총동원했지요. 개발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마침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수익성을 생각해야겠지만, 그보다 제 초심을 지키기 위해 투명 마스크 일대일 매칭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



2월의 펀딩 스토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 차량에 황색 도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경광등, 보조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개조 비용 탓에 기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 공백 없이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3월 31일까지 **목표 금액** 350만 원

모금 사용 어린이 통학 차량 개조 지원(차량 도색, 경광등·보조 발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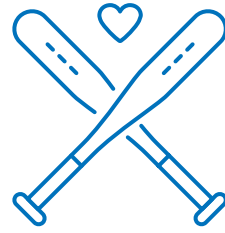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5년간 꾸준한 선행을 이어온 최고참의 품격

2020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한 NC 박석민



NC 다이노스의 박석민 선수가 KBO(총재 정운찬)와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가 공동 시상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 20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열린 '2020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앞서 박석민 선수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사진 KBO



박석민 선수에게 2020년은 잊지 못할 해가 될 듯하다. 간절히 바라던 소속팀 NC 다이노스가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또 2016년부터 꾸준히 선행에 앞장서온 그는 후배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총 8억여 원을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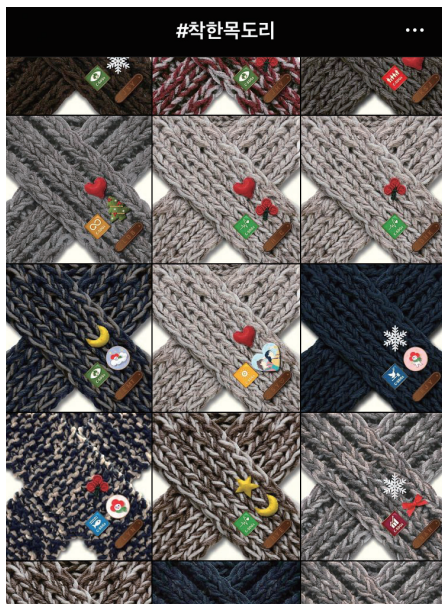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 2020년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교롭게도 그가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한 시기는 현 소속팀인 NC로 이적하면서부터다.

힘든 환경에서 야구를 하는 후배들을 위해 울하초, 대구고 등 모교와 영남대, 구단 연고 지역 초·중·고교, 유소년 야구 재단 등에 6억여 원을 후원했다. 또 양산 밭줄 추락사 유가족 지원금과 강원도 산불 성금 등으로 2억 원을 지원하며 이웃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보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대구 지역 이웃들을 위해 대구 사랑의열매에 3,000만 원을 기부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렇듯 매년 한결같은 나눔 행보를 보이며 그라운드에서는 '좋은 선수', 그라운드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구로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나눔을 알기에 박석민 선수에게 보내는 환호와 박수도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

몸은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깝게!

착한 목도리로 나눔과 희망을 이어주세요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에 맞춰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착한 목도리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됐다. 직접 나만의 목도리 이미지를
제작하는 캠페인으로, SNS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착한 목도리 릴레이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착한 목도리로 서로의 마음을 잇고 나눔과 희망까지 이어준다는 콘셉트다. 이번 희망2021나눔캠페인의 슬로건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에서 착안한 것이다. 착한 목도리 이미지 만들기를 통해 희망나눔 캠페인과 사랑의열매의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16개 지원 분야를 소개하고, 기부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www.착한목도리.kr)에 접속해 색상, 짜임, 와펜 등을 선택하고 나만의 착한 목도리 이미지를 만든 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SNS에 올린 착한 목도리 이미지와 똑같은 목도리를 2월 중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저마다 개성을 담아 만든 착한 목도리 이미지가 8,000개를 넘는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착한 목도리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 ‘착한 목도리’가 이어져 나눔과 희망을 전했으면 한다. ❀

위기 때마다 빛나는 위대한 나눔 정신

대구 구암동 착한마을

대구의 나눔 정신은 국제보상운동으로 대표된다. 1907년 일본에서 들어온 차관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며 대구에서 시작한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작은 사랑을 모아 '착한마을'이 된 구암동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글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갯벌바지락손칼국수 가입식, 한죽담 가입식, 착한단체 현판, 함지산뚝배기 가입식 모습

대구에서 가장 많은 착한가게 보유

지난해 11월 4일 기부자 80명, 배광식 북구청장, 대구 사랑의열매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북구 구암동 착한마을 선포식을 진행했다. 2016년 동구 안심동, 2018년 수성구 범물1동, 2019년 북구 국우동, 북구 동천동에 이어 다섯 번째 착한마을이 탄생한 것이다. 대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타 지역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구암동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101개소가 착한가게에 가입해 총 121개소(2020년 11월 기준)를 보유하며 착한마을이 되는 데 결정적 힘을 실어주었다. 또 대구에서 착한가게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의 나눔 정신이 구암동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한 것이다.

힘든 시기 극복하는 힘이 되길

착한마을 선포식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동네가 우리 북구에서 또 탄생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구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송재고, 김재은)은 “따뜻한 마을, 행복한 구암동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행복한 구암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나눔은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지금, 구암동에서 일어난 착한 나눔은 어려움 속에서 꺼지지 않는 나눔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구암동에서 시작된 착지만 뜨거운 나눔 불씨가 대구로, 경상도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본다. ❀



더드림삼겹살 이호섭 대표

“동네에서 착한가게를 아는 분이 많아요. 주변에 착한가게를 몇 년째 이어온 분도 많고 주민분들도 현판을 보고 ‘이 가게도 착한 일 하는 곳이네’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마을로 선정돼 일원으로서 정말 기뻐합니다. 또 나눔 돕기 위해 나선 분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어서 뿌듯했구요. 나눔의 기쁨을 한번 경험해보면 더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암동은 착한가게가 많은 곳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많은 착한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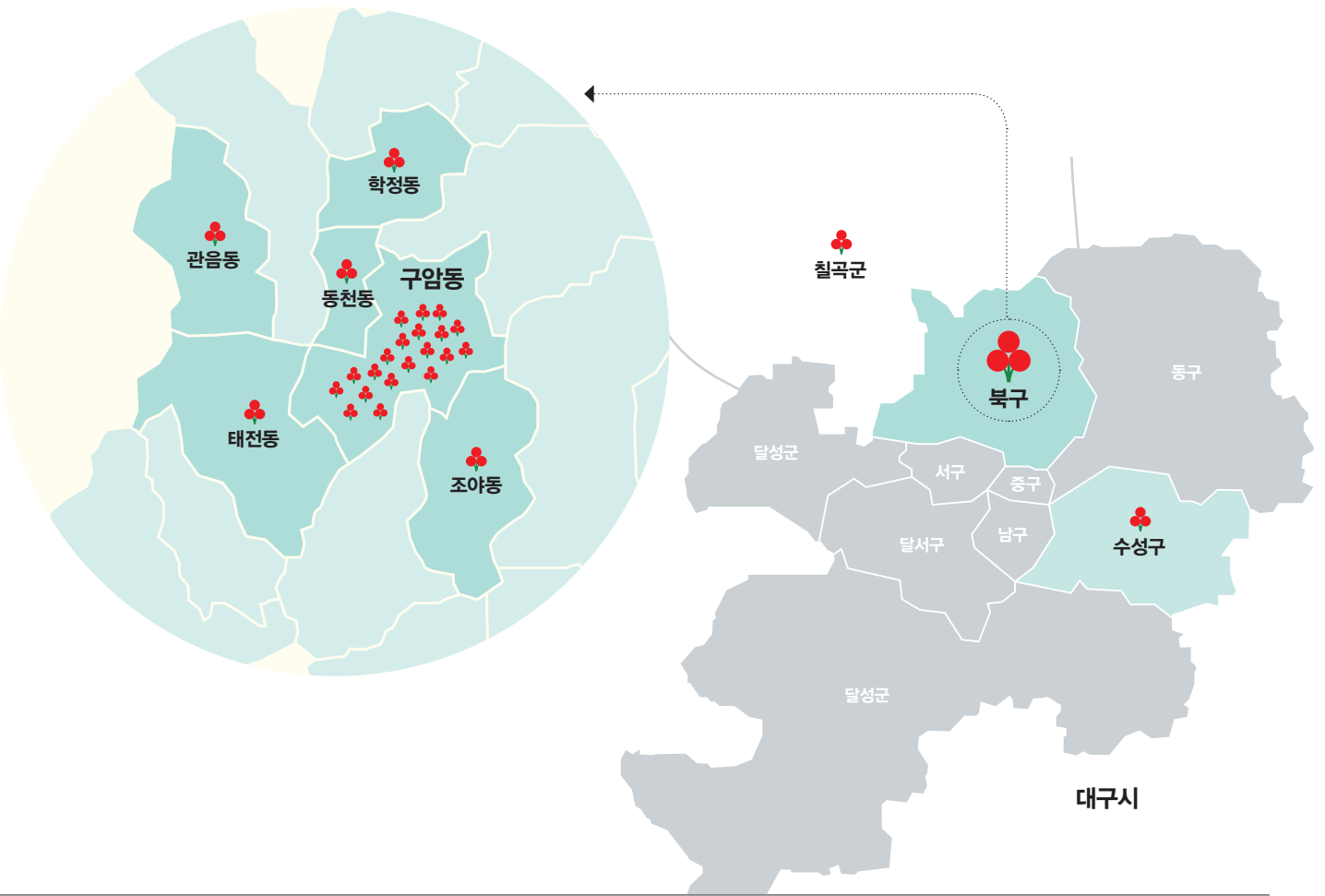


카페 봄날 정갑주 대표

“카페를 하면서 감사한 분이 많았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그 마음을 갖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했습니다. 힘든 시기다 보니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부담도 덜하고 괜찮더라고요. 나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빨리 힘든 시기가 끝나 많은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나눔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착한가게 리스트

음식	부지갱이삼겹살	청정굴국밥
강릉집	부촌한우마을	치킨바고다
강북오리박사	사랑담은묵은지짬짜개	친환경밥상
갯벌비지락손칼국수	상문이숯불두마리치킨	태일각짬뽕
고산왕갈비탕	시골여행	하늘미가
곤지곤지	신천불주꾸미	한녹담
남다른감자탕	어담횃집	함지산뚝배기
녹아원	완도전복마을	카페
대구반야월막창운암지점	삼거리오징어회타운	카페 꽃이피다
더드림삼겹살	이태리가든	드래곤커피
련	일송정	비해피라이브카페
빙글빙글식당	정애	카페봄날
부산아구찜	청담가	커피소소



꽃
선플라워꽃농원
아이캔플라워
태권도
계명대바람소리태권도장
그랜드무예태권도
선인태권도
자동차정비
기아오토큐동천점
운임정비
가구
대성가구
마벨프랑가구
장인가구 칠곡점

병원
문한의원
큰사랑치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화성그랜드공인중개사
21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기타
광장스크린골프
구암유리
구회사
더비미용실
류정선산후조리원
물레방아
미래어린이집

미소노인복지센터
성원정보통신
술주까 밥주까
신호등노래방주점
신창기계
아트비엔제이
유가종합철물
의성상회
한샘인테리어구암점
한솔크리닝
한일미디어
효성노인복지센터
효성파머스마켓 칠곡점
B엔B엔

중앙회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 美 2020 LACP 어워드 금상 수상
 사랑의열매가 올해 발간한 <2019년 지속가능보고서> 영문판이 '2020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지속가능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글로벌 마케팅 조사 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며 매년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국제 대회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적약자 권리 증진 등 사랑의열매가 추구하는 사회적

치인 지속가능목표(C-SDGs) 16가지와 지원 사업을 풀어냈다. 보고서의 전달력, 창의성, 메시지 정확성 등 8개 분야 평가 항목에서 총 98점을 받아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1,000개 참여 기업 중 종합 평가에서 37위를 기록하며 'Top 100 Worldwide'를 추가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랑의열매는 2019년부터 한 해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자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의모금함에 모인 시민의 소중한 나눔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시청 광장 사랑의온도탑에 있는 '사랑의모금함'을 개봉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설치해 한 달 만에 개봉한 모금함에는 기부금이 든 봉투와 5만 원 지폐부터 10원짜리 동전, 방역 마스크 등이 나왔다. 이날 집계한 기부금은 337만 3,310원이다. 2014년 사랑의우체통이란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이 모금함은 당초 나눔 메시지를 적어 넣을 수 있는 엽서 비치용으로 제작했으나 시민들이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서 지금은 모금함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적·폐업 위기 가정에 25억여 원 긴급 지원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해 생계가 위협을 받는 위기 가정에 25억여 원을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지속되는 등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규모는 70조 원에 이른다. 또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해 20·30대 청년층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다.

사랑의열매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위해 긴급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전 가구가 해당하며, 위기 가정 상황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부터 설 명절 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명절 직후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정부 복지 제도 및 타 후원금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며, 지역사회(지자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시설 등)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한국기자협회,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 전달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가 12월 21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에 창립해 현직 기자 1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언론 단체로, 2012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김동훈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자들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랑의열매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이종성,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지난 1월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나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열렸다. 이 의원은 가입식에서 “작은 손길 여럿이 모여 큰 힘이 되듯 나눔의 실천으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한파에 물린 대한민국에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초선 국회의원과들 함께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4개월간의 세비 30%를 모아 1억 7,000만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바 있다.



KB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00억 원 기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10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1월 18일에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윤종규 회장은 “따뜻한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달하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2001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 올해까지 총누적 기부액이 1,310억 원에 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주)씨젠, 코로나19 지원에 30억 원 전달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주)씨젠(대표이사 천종윤)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사랑의열매에 30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5월에도 이웃의 의료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천종윤 대표이사는 전달식에서 “올해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 제품 공급이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했으며, 더불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사랑의열매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GS그룹,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40억 원 기탁

GS그룹(회장 허태수)이 지난해 12월 15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40억 원을 전달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왔으며 성금 누적 금액은 600억 원에 달한다. 허태수 회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며 또 “기업이 나눔을 통한 사회적 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14년째 이웃사랑 성금 전달

지난해 12월 16일 고려아연(주)(회장 최창근)이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2007년부터 매년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4년간 누적 기부금이 268억 원에 달한다. 고려아연(주) 이재중 부회장은 가입식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라미TV, 착한유튜버 릴레이 기부 동참

유튜브 채널 ‘보라미TV’ 정보람 씨가 서울 사랑의열매 착한유튜버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 번째 착한유튜버가 됐다. 미니어 처, 인형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4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보람 씨는 약 2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다. 그는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이 나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동참 소감을 전했다.



명륜진사갈비·베리굿 조현, 쪽방촌 연탄나눔 봉사 실시

명륜진사갈비 본사 (주)명륜당 임직원들과 전속 모델인 가수 베리 굿 조현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쪽방촌에서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주)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브랜드 론칭 이후 줄곧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번엔 매서운 한파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직접 봉사 활동에 나선 것이다. 또한 연탄 2,200장과 마스크 3,000장을 기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NK금융그룹, 설맞이복꾸러미 지원

BNK금융이 ‘2021 설맞이 多福多福(다복다복) 나눔 사업’을 진행하며 4억 5,000만 원 상당의 ‘BNK 복꾸러미’를 기부했다. 복꾸러미에는 명절 상차림 재료와 코로나19 예방 키트 등 물품 10여 종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물품 위주로 구성된 복꾸러미는 부산과 김해, 양산 등의 주민자치 센터를 통해 9,000세대에 전달했다. 부산 사랑의열매도 성금 6억 원을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 1만 2,000여 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지원금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부산 시에 총 1억 5,9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급감한 가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했다. 부산 사랑의열매 신정택 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부산 시민의 사랑으로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구



화성산업(주), 이웃 돕기 성금 2억 원 기탁

화성산업(주)대표이사 회장 이홍중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2억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화성산업(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표적 대구 향토 기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웃의 삶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해보다 1억 원 더 늘린 금액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을 포함해 화성산업(주)이 2004년부터 대구 지역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달한 성금은 총 15억여 원에 달한다.



에스엘서봉재단, 15년째 이어진 이웃사랑

지난 2006년 설립한 이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에스엘서봉재단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4억 3,000만여 원을 전달했다. 에스엘서봉재단 이충곤 회장은 “우리의 나눔이 희망찬 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엘서봉재단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겪을 당시에도 성금 5억 원을 기탁하고, 경영난을 겪는 협력 업체에 경영 자금 7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 바 있다.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파 이겨낼 통 큰 나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22억 7,000만 원을 쾌척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감행한 것이다. 이 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 큰 나눔으로 인천 사랑의열매도 후원주는 34도 수직 상승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지역 사회적 약자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대교(주), 성금 전달로 희망 이어

인천대교(주)가 '인천대교 희망잇기 사업' 지원금 2,000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인천대교(주)는 1999년 설립한 이후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속적 지원을 위해 인천 사랑의열매와 '인천대교 희망잇기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나눔을 이어가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마련한 이번 지원금은 중구 지역 자활 대상 20가구에 전달했다.



탐솔라그룹, 직원 일동 십시일반 모은 정성

탐솔라그룹 오형석 회장 외 직원들이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공 1,547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오형석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확산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탐솔라 직원들의 나눔 참여는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주)한국경영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참여

(주)한국경영원(대표이사 김보현)이 성금 1,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 열매에 기탁하며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주)한국경영원은 그동안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코로나19 극복 성금 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에 앞장서왔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따뜻한 나눔과 이웃사랑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끔 나누는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유토개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량 지원

(주)유토개발(대표 임종인)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성금 8,942만 1,76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수 차량 2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임종인 대표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더 자유로운 이동권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며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대전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소식으로 위로가 되길 희망해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 성금 1억 500만 원 기탁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노사 합동으로 모은 성금 1억 500만 원을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지난 11월 노사 합의에 따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은 대전 사랑의열매에 1억 원, 대한결핵 협회에 500만 원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김중철 노동조합위원장은 “임직원 모두 지역사회의 고통 분담에 함께하겠다”며 “성금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롯데상동복지재단, 크리스마스 선물로 행복 전달

롯데상동복지재단(대표이사 권혁운)과 울산 사랑의열매가 12월 17일, 울산지역 내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2,006개(총 5,000만원 상당)를 기부하여, 지역 내 아동시설 및 장애아동시설 80개소를 통해 전달했다. 롯데상동복지재단은 “크리스마스 와 연말에도 코로나 인해 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배양규 원장, 울산100호 아너로 가입

울산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 배양규 비노 의학과의원 배양규 원장이 울산 1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울산 1호 우재혁(주)경북타일 대표)회원 가입 이후 12년 3개월만이다. 그동안 나눔 의료 봉사단 활동을 해오던 배양규 원장은 또 다른 나눔 참여방법을 찾던 중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안내받아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



맨즈(HHJ) 황현준 대표, 경기 240호 아너 가입

경기 사랑의열매에 240호 아너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맨즈(HHJ) 황현준 대표다. 그는 그동안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제품 판매 수익금 500만여 원을 기탁하는 등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나눔을 실천해왔다. 황현준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생각하며 달려왔다”며 “나눔을 통해 이웃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이웃사랑 실천

지난 1월 14일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이사장 변영훈)이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1,090만 원을 전달했다. 2007년부터 매년 희망나눔캠페인 기간마다 성금을 기탁해 사랑의온도탑 온도를 올리고 있는 동수원병원의 누적 기부액은 1억 6,920만 원에 이른다. 변영훈 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부를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2.3클럽, 희망 나눔 성금 기부

고양시 소재 1.2.3클럽(대표이사 한제걸)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제걸 대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1.2.3클럽은 매년 5,000만 원씩 20여 년간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10억 1,000만 원이다.



예사랑유치원·어린이집, 소다수 나눔 캠페인 동참

예사랑유치원·어린이집(원장 김지현·김민자)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저금통을 전달하며 ‘소다수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2개월간 원아들이 모은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김민자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나눔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모은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기수 대표, 기부와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 임기수 대표가 지난 12월 31일 강원 사랑의열매에 6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와 장애인 시설인 그린교육원에 지원한다. 1978년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 개점 이후 43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온 임기수 대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기부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부터는 아들 임재홍 씨가 기업과 함께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시약사회,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액 기탁

지난 12월 30일 춘천시약사회(회장 최백규)가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액 226만 3,190원을 기부했다. 춘천시약사회는 지난 2019년 5월 강원 사랑의열매와 비닐봉투 유상 제공을 통한 모금액 전액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작년 1월 기부한 후 지난 1년 동안 모은 성금을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맞아 다시 기탁한 것이다. 최백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 이웃 위해 통 큰 기부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대표 최상순, 이하 금강센테리움CC)은 지난 12월 30일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5,0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금강센테리움CC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정했다. 김종명 총지배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충주 시민의 작은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의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금은 충주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충북 사랑의열매 노영수 회장,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지난 1월 20일 충북 사랑의열매 노영수 회장은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노영수 회장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탁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탁금은 충북대학교병원의 추천을 받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부성)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 농촌진흥자원개발센터 주관 '비대면 교육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상을 각각 수상하며 받은 포상금으로 마련했다. 김부성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K-산타클로스 프로젝트로 지역 상생 실천

지난 12월 30일 한국중부발전(주)은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맞아 'K-산타클로스 프로젝트' 기부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한국중부발전과 충남 사랑의열매, 보령시, 보령시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해 4개 사업을 지원한다. 기부금은 '희망장학금', 'K-희망나눔 사업', '노·사 합동 희망드림 사업'에 쓰였으며, '노·사가 함께하는 희망차량 기증 사업'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 태인CC, 정읍시 이웃 위해 5,000만 원 쾌척

태인컨트리클럽(대표 고환승)이 지난 12월 15일 정읍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고환승 대표는 “어려운 이웃이 좀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 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은 “성금으로 정읍시 복지사 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익명 기부 천사, 나눔온도 높이다

지난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이름 없는 기부 천사 33명이 전북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21번째 기부해온 전주출의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12월에도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 1월엔 본인을 김달봉이라고 밝힌 한 중년 신사가 직접 찾아와 1억 2,000만 원을 놓고 갔으며, 고향이 임실이라는 한 독지가가 3억 7,000만 원을 기부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한 전북 지역 익명 기부자들의 기부금은 6억 원에 달한다.



광주은행, 전라남도 사랑 기부금 기탁

지난 12월 22일 광주은행이 전라남도 사랑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성금 1억 3,191만 5,612원을 전라남도청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2018년 광주은행이 전라남도청과 맺은 '광주전남애(愛) 사랑카드' 업무 협약에 따라 개인 카드 이용 금액의 0.5%, 기업 카드 이용 금액의 0.1%를 적립한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했다. 성금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취약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싹짓돈 모아 실천한 이웃사랑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회장 배기술)는 지난 1월 12일 성금 6,45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전남 지역 1,600여 개 경로당 회원들이 지난 8월부터 경로당에 설치한 '이웃사랑, 나누면 행복' 소형 모금함에 싹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것이다. 배기술 회장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십시일반 모은 성금인 만큼 코로나19와 한파로 힘들게 지내는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건설공제조합, 5,000만 원 전달

지난 12월 29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배인호)가 성금 5,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한파에 시달리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건설공제조합이 함께 마련했다. 배인호 회장은 “우리의 참여가 모두의 온정을 모으는 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임영웅 팬클럽, 가수의 온정 나누고자 기부 동참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with Hero’가 지난 1월 4일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영웅시대 관계자와 경남 사랑의열매 유병설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영웅시대 관계자는 “임영웅 가수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께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 창원 영웅시대 팬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와 맺은 연합 모금 협약식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12일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와 ‘찾아가는 행복커뮤니티’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모금 사업을 해온 두 기관은 이번 재협약을 통해 겨울에 한정되던 연탄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김치 나눔과 사랑의 빵 나눔, 해외 개발도상국 원조 등 1년 내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남 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34개소에 배분금 전달

지난 1월 15일 경남 사랑의열매가 ‘2021년 신청 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7월부터 신청받아 서류·면접·현장 심사 및 최종 회의를 거쳐 선정한 프로그램 사업 21개소, 기능보강 사업 13곳에 총 4억 1,983만 7,500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 기관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 사업과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소주, 십시일반 모아 지역사회에 기부

제주소주(본부장 문성후)는 지난 1월 6일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936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제주소주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소독용 알코올을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이번 성금은 제주소주 임직원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등 도내 사회복지 기관 6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내 사회복지 기관 62개소에 사업 지원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20일 '사랑의열매 2021년 신청 사업'에서 나눔 파트너로 선정된 도내 사회복지 기관 62개소에 7억 6,365만 1,400원을 지원했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을 발굴·지원해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제주 사랑의열매 김남식 회장은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KCC·계룡건설·공직자, 성금 기부로 따뜻한 세종시

(주)KCC세종공장과 계룡건설은 지난 1월 21일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주)KCC세종공장은 지난 5년간 성금 기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3년여간 총 7,000만 원의 성금을 쾌척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세종시청 공직자 846명은 이번 캠페인에 1,498만 3,790원을 기탁했으며, 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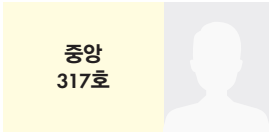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직원, 성금 1,000만 원 기탁

지난 1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홍식 원장)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매년 도움이 필요한 세종시 이웃을 위해 희망캠페인 성금을 기탁해왔다.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제화를 생산하는 사회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에 직원들의 구두 제작을 의뢰하는 등 다양하고 색다른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중앙
317호

익명

"나눔이란 50여 년 전 가난했을 때 이름 모를 외국 후원자에게 받은 도움을 갚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받은 자가 나중에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중앙
318호

이동기 공단지 영어 강사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눔을 통해 그들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중앙
319호

김옥례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뜻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를 힘든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중앙
321호

故 이원승

"이 나눔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고 고인에게는 큰 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한 인연으로 상품상생(上品上生) 바랍니다."



중앙
322호

이제호

"나눔은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 기쁨."



중앙
323호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리의 나눔이 모두의 희망입니다."



중앙
324호

서정길 바른글로벌마케팅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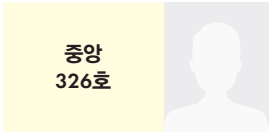
"나눔이란 100억 가진 자의 1%인 1억 원 못지않게 100만 원 가진 자의 1%인 1만 원에 담긴 나눔의 마음이, 더 크게 귀할 수 있는 것"



중앙
325호

이주원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중앙
326호

익명

"나눔이란 함께 사는 것."



중앙
327호

최영준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309호

조찬만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나눔이란 주변에 전파되는 선한 에너지이자, 삶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랑입니다."



서울
310호

광지은

"나눔이란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산
210호

이승배 미나미오텍 대표

"나의 작은 선행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212호

손창우 (주)한국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나눔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일과 이웃을 돕는 활동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213호

백형술 (주)한국종합기계 대표이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뿌듯합니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던 나눔을 실천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부산
214호

박수정 수정안과 대표원장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아너 소사이터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대구
170·171호

**이명수 (주)진양오일셀 대표·
박영선 (주)제이씨티 대표**
“우리 부부의 용기가 나눔 실천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149호

장창표 예창건설(주) 대표이사
“넉넉지 못한 시절 어려움을 겪으며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인천
150호

김덕호 (주)현대특수건설 대표이사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아너 소사이터티에 가입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부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117호

오동식 대라수건설 대표이사
“새해를 맞아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유난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문화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
87호

이혜용 (주)극동전기 대표이사
“나눔 실천을 통해 아이들의 꿈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대전
88호

강도목 (주)기산엔지니어링 회장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뜻깊고 아름다운 일기에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며, 고귀한 일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전
89호

이장근 시티성형외과 원장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때 나눔의 가치가 더해져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울산
101호

류혜렬 (주)유성 대표이사
“당신의 희망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경기
240호

황현준 맨즈(HMJ) 대표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강원
82호

김진호 세움종합건설(주) 대표
“아너 소사이터티 가입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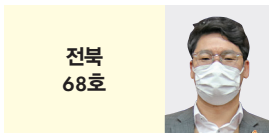
충북
59호

윤인기 (주)두성기업 대표이사
“신앙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며, 나누는 기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습니다.”



충북
60호

연영만 인성종합건설(주) 회장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68호

이희상 세무법인 설록텍스 전주지사 사무장
“제 나눔이 주위 어려운 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127호

김형성 대영전자 회장
“나눔문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
132호

이경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목사
“섬기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충남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 신이루나, 하세정, 박하을, 박하늘 **전북** 김달봉(가명),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남** 오재대 (주)에이엔티종합건설 대표이사 **경남** 강동국 대지종합건설(주) 대표, 서영옥 (주)화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의견



여행의 꿈과 낭만을 선사한 전동화 키트 대어 서비스 '휠세어'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활성화되고 그 수도 증가했지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무장애 여행이 보다 활성화되어 장애인이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사회가 아닌, 그들이 가고 싶은 지 가고 싶지 않은 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유재범, 서울시 성북구



눈 덮인 겨울 풍경은 아름답지만, 추운 겨울을 나아 하는 소외된 이웃들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이 같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울겨울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가는 '희망2021나눔캠페인 62일간 나눔 여정 시작' 기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세상 어느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풍경이 많을수록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고, 사회는 더 훈훈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 강예숙, 인천시 연수구



저의 부모님이 원한 나눔의 열매가 사자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원한 나눔의 열매가 사자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원한 나눔의 열매가 사자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원한 나눔의 열매가 사자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원한 나눔의 열매가 사자라면 좋겠습니다.

- 김진순, 부산시 사하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마스크(색상 랜덤)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 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돈 꺼 줘 기부하는

찍어! 찍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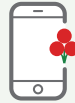
방탄
이거 QR 코드야!

스마일 방범 한법

작은 마음으로 큰 기적을 만드는 소중한 다수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